

#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에 미치는 효과

김민지<sup>1</sup>, 김경진<sup>2\*</sup>

<sup>1</sup>경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Effects of Health Care Nursing Policy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terest

MinJi Kim<sup>1</sup>, Kyeng-Jin Kim<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2023년 3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G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실험군 44명, 대조군 45명으로 총 89명이었다.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은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모형의 교수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 정치효능감( $t=2.34, p<.05$ )과 내재적 정치효능감( $t=2.75, p<.05$ ), 소극적 정치참여( $t=2.22, p<.05$ )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교육에서 보건간호정책 교육은 외재적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제안한다.

**키워드** : 보건의료 간호정책, 간호대학생,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정치 관심도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health care nursing policy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terest. It attempted to guide the direction of policy education within nursing curriculum. The subjects consisted of 89 nursing students of G-university from March 8, 2023, to June 21, 2023, including 44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5 in the control group. The health care nursing policy class was developed using the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model of instructional design. Data analysis used the SPSS 25.0 program through mean,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is educ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political efficacy( $t=2.34, p<.05$ ) and intrinsic political efficacy( $t=2.75, p<.05$ ), as well as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score( $t=2.22, p<.05$ ) compared to before the interven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health care nursing policy education should be structured to enhance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promot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in future nursing curriculum.

**Key Words** : Health care nursing policy, Nursing student,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nterest

\*Corresponding Author : Kyeng-Jin Kim(kkjin@knu.ac.kr)

Received October 10,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

Revised October 20, 2023

Published November 28, 2023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최근 COVID-19 대유행과 같은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이슈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문화된 간호업무와 병원에만 국한된 의료법의 한계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23년 2월에 개정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 정책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1]. 또한 전문직으로써 간호사는 간호 및 건강과 관련된 정책 형성과정과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을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1]. 이에 따라 간호법 관련 서명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정책 연구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정치 활동을 스스로 함으로써 사회변화, 즉 정치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외재적 효능감과 내재적 효능감으로 나뉘는데 외재적 효능감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대응에 믿음이고, 내재적 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2]. 정치효능감은 지식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3], 정치효능감과 정치적 인식의 우선순위는 모호하지만 교육에 따라 정치적 인식과 효능감은 상승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미루어볼 때 적절한 정책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정치참여는 국민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으로[5], 선거를 통한 투표, 정당의 선택, 정책 결정 등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6]. 보건의료전문직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보건의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책임이 있다[7,8]. 간호사는 정치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도가 있으며 간호조직은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정치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간호정우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 9월 현재까지 간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장관 2명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7명, 기초단체장 1명, 지방의원 72명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9].

간호사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역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미국 등에서도 간호 전문직의 정치적 역량 및 정치참여가 낮음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으며[8],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을 높여 정치 참여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보고하였으며, 정치신뢰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같이 보고되고 있다 [11-13].

정치 관심도는 투표율로 나타날 수 있는데, 투표율은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준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 기준, 60-70대의 투표율이 85% 이상이 되는 것에 비해 20대의 투표율은 70% 초반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관심과 정치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 의무를 느낄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15],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보다 정치적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16],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예비 간호사이고[17], 향후 높은 수준의 간호 제공을 위해 간호의 질과 접근성, 보건의료 자원이용과 배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18]. 그러나 현재 간호대학생의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와 정책 관련 교육은 대부분 지역사회 간호학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 정책에 대한 정보는 학교 수업을 통해 습득하기를 희망하였으며[19], 정치적 관심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6]. 따라서, 보건의료 간호정책 커리큘럼을 재정비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보건 의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2], 인구나사회학적 특성과 정치효능감, 정치관심 등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었다[20].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연구 [13,21,22],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 관련 연구[10]가 있었다.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실제 보건의료 간호정책 관련 교과목과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과목에서의 팀기반 학습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고[23], 그 외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과목을 통해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 수준을 확인하여, 추후 미래의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의료 및 간호정책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2)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3)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치 관심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정치적 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소재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해당 대학의 전공선택과정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과목을 수강한 학습자와 수강하지 않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서면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한 연구[24]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70, 검정력 80%를 적용한 것을 근거로 계산하

였을 때 산출된 대상자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 34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45명, 대조군 45명 총 90명을 선정하였다. 수업 진행에서 결석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 실험군 44명, 대조군 4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정치의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이며,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효능감은 본인의 정치 효과성 또는 자신감을 반영하며, 외재적 효능감은 정치 체제의 반응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Shin[2]의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 내용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역문항으로 계산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쪽을 정치효능감이 높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쪽을 정치효능감이 낮다고 보았다. Shin[2]의 연구에서 내재적 효능감의 Cronbach's  $\alpha$ 는 .83, 외재적 효능감은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의 Cronbach's  $\alpha$ 는 .80, 내재적 효능감은 .72, 외재적 효능감은 .87이었다.

### 2.3.2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정치참여 의향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Nam과 Huh[6]의 연구를 Shin[2]이 변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치참여는 소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인 참여는 인터넷 정치 사회 문제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해 글을 쓴 행동을 포함하며, 적극적인 참여는 서명 운동 참여, 정당 정치 참여, 간호정우회 가입 및 정치 문제에 대한 모임 참여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Shin[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62이었다.

### 2.3.3 정치 관심도

정치 관심도는 정책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Shin과 Yang[25]의 도구를 근거로 Shin[2]의 정치 관심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3이었

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 2.3.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인구학적 배경, 학업 성적 등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10]. 연령,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3년 3월 8일부터 6월 21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 배포 후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응답이 완료된 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2.5 연구진행 방법

### 2.5.1 보건의로 및 간호정책 수업설계

보건의로 간호정책 프로그램은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을 활용하여 2023년 1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구체화하였다[26](Fig. 1 참고).

분석 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 목표의 적절성, 교과목 요구도 및 학습자 분석을 시행하였다. 학습목표 적절성 분석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 확정한 제9차 장기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간호법 제정,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간호관리료 체계, 전문간호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이 필수 내용임을 확인하였다[27]. 교육

요구도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 보건의로 간호정책에 대한 과정을 구성하였다[28]. 학습자 분석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일반전공대학생에 비해 정치효능감이 낮으며, 정치관심과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정치적 활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13]를 바탕으로 정치참여를 위해 수업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건의로 정책 또는 간호정책의 강의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이 세부 수행목표 명세화, 교육내용 및 전략 설계, 교육환경 조성, 전달체계 및 매체 선정에 대한 단계를 거쳤다. 대학생의 정치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 활용이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2,17,21]에 따라 2학년 수준에 적합하게 과정을 구성하고 신문, TV, 인터넷, SNS와 같이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구성하였다.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개념에 대한 정리부터 최근 보건의로 간호정책 이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을 구성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보건의로 간호정책 수업의 전체 회기, 회기별 주제, 총 시간, 내용, 전달 전략에 대한 수업 자료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전문가 검토 후 수정보완된 내용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한 총 13회기로 주차별 교육시간은 교육에 대해 설정된 목표 및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교육의 원활함을 위하여 조별과 개별 발표 또는 토의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업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사전에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매주 수업 전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보건의로 간호정책 수업을 실제로 2학년 대상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는 단계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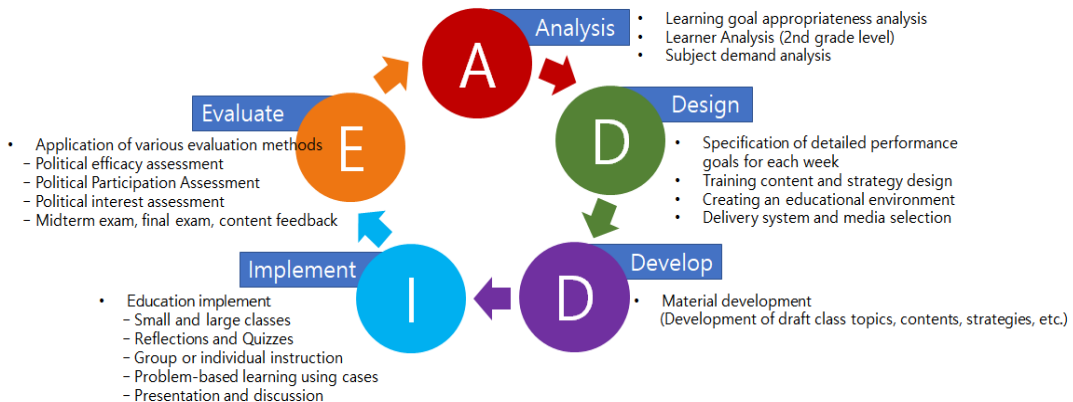


Fig. 1. Development stage of health care nursing policy education

년 3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수업시간에 회기에 따라 보건의로 간호정책 수업을 진행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보건의로 간호정책 교육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내용에 대한 피드백,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지식에 대한 평가였으며,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는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정치 관심도에 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5.2 보건의로 및 간호정책 수업 적용

본 연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5주차 수업 이후 실험군과 대조군에 일반적 특성,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정치 관심도를 자가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보건의로

간호정책 수업은 2학점 2시간으로 총 15주차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대면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Table 1과 같다.

강의와 관련된 수업구성은 도입부분에서 당일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수업 진행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직전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환기시켰다. 전개부분에서는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관련 동영상 시청한 후 학습내용과 연관시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PPT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정리부분에서는 매 주차 학습내용을 퀴즈를 풀어봄으로써 마무리를 하였다. 종료 시에는 다음 차시 수업내용을 안내하였다.

발표 및 토론과 관련된 수업구성은 사전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사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Table 1. Experimental intervention: health care and nursing policy education content

	Contents	Learning Objectives	Method
1	Subject orientation Study description and consent	Identify overall trends in health care policy.	Lectures and Quizzes
2	Overview of health care policy	Understand health care Explain the policy.	Lectures and Quizzes
3	Understanding health care policy	Explain the concept of health care policy and the health care policy process. Classify types of health care systems. Explain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care system.	Lectures and Quizzes
4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Understand health care resources, health care personnel, facilities and organization. Classify Korea's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Lectures and Quizzes
5	Provision and management of health care services	Explain the health care service provision system. Understand management.	Lectures and Quizzes
6	Nursing policy issues (the art of nursing)	Presents the justification for enacting the act of nursing.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act of nursing. Provides direction for the act of nurs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 Use of media
7	Nursing policy issues (Professional nurse system)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nurse personnel. Understand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Presentation and discussion Use of media
8	Midterm exam		Test
9	Health care policy	Explain changes in the health care policy environment. Understand international health.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health issues.	Lectures and Quizzes
10	Nursing polic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our country's nursing policy. Analyze and evaluate trends in nursing policy declaration ceremonies in our country.	Lectures and Quizzes
11	Nursing policy issues (Nurse working environment)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nurse personnel. Analyze and compar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nursing workforce with international indicators. Explain the working environment of nurses.	Presentation and discussion Use of media
12	Nursing policy issues (Nurse treatment improvement measures)	Present policy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nursing personnel.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nurses.	Presentation and discussion Use of media
13	Nursing policy issues (Nursing management fee system)	Understand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Discuss the nursing staff rating system.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nursing management fee system.	Presentation and discussion Use of media
14	Nursing policy issues (Realization of integrated care in the community)	Present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ommunity nursing business. Explain the role of a community nurse. Presents a community health information system.	Lectures and Quizzes
15	Final exam		Test

을 제공하였고, 수업 시간에는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유도하였다. 매체는 신문, 인터넷, SNS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각 발표에 1개 이상의 매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대상자 모집을 위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 및 진행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학생임을 고려하여 연구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에 대한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매회 공지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작성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설문지의 모든 응답은 부호화 처리를 시행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만으로 사용할 것임을 안내하였고 이후 완전히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회수하여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

하였고, 설문 참여 여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안내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2.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5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chi^2$  -test와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여 검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실험처치의 효과 검정을 위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 정치 관심도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실험군 20.64(±1.08)세이며, 대조군은 20.49(±0.97)세였다. 성별은 실험군에서 여성이 75.0%, 대조군에서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89)

Variables	Sub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 44)	Control group (n=45)	$\chi^2 / t$	p
		M±SD (%)	M±SD (%)		
Gender	Male	11 (25.0)	9 (20.0)	0.32	.572
	Female	33 (75.0)	36 (80.0)		
Age(yr)		20.64±1.08	20.49±0.97	0.94	.499
Religion	Yes	12 (27.3)	10 (22.2)	0.31	.581
	No	32 (72.7)	35 (77.8)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Not satisfied	5 (11.4)	3 (6.7)	0.79	.674
	Satisfied	33 (75.0)	34 (75.6)		
	Very satisfied	6 (13.6)	8 (17.8)		
Self-evalu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Low	7 (15.9)	6 (13.3)	1.13	.568
	Middle	31 (70.5)	29 (64.4)		
	High	6 (13.6)	10 (22.2)		
Academic performance	Average rating greater than 2.5 and less than 3.0	3 (6.3)	3 (6.7)	3.80	.284
	Average rating greater than 3.0 and less than 3.5	6 (13.6)	7 (15.6)		
	Average rating greater than 3.5 and less than 4.0	24 (54.5)	16 (35.6)		
	Average rating greater than 4.0	11 (25.0)	19 (42.2)		
Necessity of health care and nursing policy programs	Necessary	41 (93.2)	42 (93.3)	0.00	.651*
	Unnecessary	3 (6.8)	3 (6.7)		
The media that influenced the election	TV	7 (15.9)	9 (20.0)	0.84	.840
	Internet	15 (34.1)	16 (35.6)		
	SNS	10 (22.7)	7 (15.6)		
	Friend or family	12 (27.3)	13 (28.9)		

\* : Fisher's exact test

Table 3. Comparison after health care nursing policy education

(N=89)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 44)	Control group (n=45)	t	p
		M±SD	M±SD		
Political efficacy	pre	3.09±0.44	3.02±0.44	0.80	.427
	post	3.26±0.52	2.98±0.60	2.34	.022
Intrinsic political efficacy	pre	3.58±0.56	3.48±0.50	0.87	.386
	post	3.77±0.59	3.42±0.59	2.75	.007
Extrinsic political efficacy	pre	2.51±0.58	2.47±0.83	0.31	.758
	post	2.64±0.70	2.44±0.95	1.13	.261
Political participation	pre	2.11±0.42	2.00±0.47	1.17	.247
	post	2.19±0.43	2.03±0.48	1.59	.115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pre	1.98±0.66	1.76±0.77	1.46	.149
	post	2.18±0.63	1.85±0.75	2.22	.029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pre	2.19±0.40	2.16±0.45	0.42	.678
	post	2.19±0.42	2.16±0.48	0.39	.694
Political interest	pre	2.81±0.53	2.84±0.88	-0.17	.864
	post	2.97±0.67	2.94±0.98	0.16	.870

80.0%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종교( $\chi^2=0.31$ ,  $p=.581$ ), 대학생활 만족도( $\chi^2=0.79$ ,  $p=.674$ ), 학업성취도 자가평가( $\chi^2=1.13$ ,  $p=.568$ ), 학업성적( $\chi^2=3.80$ ,  $p=.284$ )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2 대상자의 보건의로 및 간호정책 교육 후 비교

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점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의 정치효능감은 3.26(±0.52)점, 대조군은 2.98(±0.60)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34$ ,  $p=.022$ ). 정치효능감의 하부요인인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실험군 3.77(±0.59)점, 대조군 3.42(±0.5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75$ ,  $p=.007$ ). 그러나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실험군 2.64(±0.70)점, 대조군 2.44(±0.95)점으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13$ ,  $p=.261$ ).

정치참여는 실험군 2.19(±0.43)점, 대조군 2.03(±0.48)점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59$ ,  $p=.115$ ). 정치참여의 하부요인인 소극적 정치참여는 실험군 2.18(±0.63)점, 대조군 1.85(±0.7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t=2.22$ ,  $p=.029$ ), 적극적 정치참여( $t=0.39$ ,  $p=.694$ )는 교육 후 집단 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치관심도는 실험군 2.97(±0.67)점, 대조군 2.94(±0.98)점으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16$ ,  $p=.870$ ).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로 간호정책 수업이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은 실험군은 평균 3.09점, 대조군은 3.02점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효능감을 분석한 Shin[2]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내재적 효능감은 2.48점, 외재적 효능감은 3.59점으로 나타나 이를 역문항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에서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실험군 3.77점, 대조군 3.42점, 외재적 정치효능감 실험군 2.64점, 대조군 2.44점으로 내재적 정치효능감이 외재적 정치효능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일치하였다. 보건의로 간호정책 교육 시행 후 정치효능감 점수는 실험군 3.26점, 대조군 2.9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실험군에서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 모두 사전 점수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코소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을 통해 내재적, 외재적 정치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29]. 그러나 본 교육에서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내재적 정치효능감을 외재적 정치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참여, 프로그램, 보건의로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치 체제의 반응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높여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

효능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의 커리큘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에 대한 점수는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평균 2.19점, 대조군은 2.03점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정치참여 점수는 사전 실험군 2.11점, 대조군 2.00점, 사후 실험군 2.18점, 대조군 1.85점이었으며, 적극적 정치참여 점수는 사전 실험군 2.19점, 대조군 2.16점, 사후 실험군 2.19점, 대조군 2.1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Shin[2]의 연구에서 소극적 정치참여는 평균 1.95점, 적극적 정치참여 점수는 평균 2.01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하며, 대부분의 연령이 20대인 것을 미루어볼 때 20대의 정치참여가 낮다는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이다[2]. 교육과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30]에 따르면 교육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도 정치활동이 낮아 그 관련성에 대해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사회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 및 환경과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소극적 정치참여도를 높인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전후를 비교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보건의료 간호정책 수업을 통해 정치참여 점수가 향상된 것을 볼 때, 교육을 통해 정치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 관심도는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 전 실험군에서 평균 2.81점, 대조군에서 평균 2.84점, 교육 후 실험군에서 평균 2.97점, 대조군에서 평균 2.9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Lee & Lim[1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평균 3.18점, 일반전공 대학생 평균 2.95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같은 도구로 간호사의 정치 관심을 확인한 Jeon, Koh & Bae[10]의 연구에서는 평균 2.77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을 시행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교육 후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치 관심도에 대한 변수가 지난 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교육이나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의 노출은 정치적 관심을 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정치적 활동으로 연결되기 어렵다[20,31]. 본 교육을 통해 정치에 무관심했던 간호대학생들이 정치에 쉽게 노출되었지만[20], 여전히 국내외

보건의료환경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2,17,21], 수업시간을 활용한 보건의료 간호정책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유도하여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줌으로써[32] 추후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2학년 간호대학생에게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간호정책 수업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정치 관심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국내 보건의료 간호정책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건의료 간호정책 수업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치효능감과 소극적인 정치참여를 높여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추후 정책 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로 결과 해석 시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년과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간호정책 교육의 효과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간호정책 수업이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대상자는 실험군 44명, 대조군 45명이었으며, 본 연구 결과 정치효능감과 정치효능감 하위변수인 내재적 정치효능감, 소극적인 정치참여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간호대학생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및 정치 관심도를 높여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 간호정책 수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 이후 예비 간호사 및 간호사의 정치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해 외재적 정치효능감 및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Korean Nursing Association. (2023). Korean Nurses'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 [2] J. S. Shin.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edia Use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ir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3] K. M. Ji & N. S. Kim. (2021). Effect of Elderly's Digital Literacy on Political Efficac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1601-1616. DOI : 10.22143/HSS21.12.1.113
- [4] W. Bobbi, S. Denise & B. V. Sandra. (2016). Modifiable factors that support political participation by nurse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2(1), 54-61. DOI : 10.1016/j.profnurs.2015.06.005
- [5] T. G. Yoo. (2010). Theories and Realities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4(2), 243-267.
- [6] I. Y. Nam & I. S. Huh. (2012). Adolescents' and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Using Media.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4, 5-35. DOI : 10.35731/kpca.2012..24.001
- [7] S. Abood. (2007). Influencing health care in the legislative arena,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12(1), Manuscript 2 DOI : 10.3912/OJIN.Vol12No01Man02
- [8] N. K. Han & G. S. Kim. (2020). Concept Development of Political Competence for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10), 81-100. DOI : 10.4040/jkan.2020.50.1.81
- [9] Korean Nurses Political Society. (2023). Former nurse politician. Retrieved from <http://www.nursepower.or.kr>
- [10] S. Y. Jun, L. S. Ko & K. R. Bae. (2014).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as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3), 342-352. DOI : 10.11111/jkana.2014.20.3.342
- [11] K. Y. Kim. (2003). *(The) Study about social worke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tate and an influenced fact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2] J. C. Lee. (2007). Political Culture and Voting Behavior: Cognitive, Affective, and Evaluative 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5.31 Local Election. *Korea and World Politics*, 23(2), 93-121. DOI : 10.17331/kwp.2007.23.2.004
- [13] M. K. Lee, J. Y. Lee & S. H. Lim. (2021). Effect of Nursing Students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Trust on Political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Non-nursing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57, 113-132. DOI : 10.37243/kahms.2021.57.113
- [14] Statistics Korea. (2023). Election turnout. Retrieved from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8>
- [15] S. G. Kang. (2016). Early Voting and Turnout: An Analysi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Survey. *Journal of Korean Politics*, 25 (3), 225-251. DOI : 10.35656/JKP.25.3.9
- [16] K. O. Hee.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Interest and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of the MZ Generati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1(2), 33-42. DOI : 10.22678/JIC.2023.21.2.033
- [17] S. Y. Jun, I. S. Ko & J. H. Lee. (2015). Influencing Factors of SNS Usag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Health and Social Science*, 0(38), 69-93.
- [18] S. H. Kim, D. A. Scheufele & J. Shanahan. (2005). Who cares about the issues? Issue voting and the role of news media during the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5(1), 103-121. DOI : 10.1111/j.1460-2466.2005.tb02661.x
- [19] K. J. Park & M. Kwon. (2018). The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 and Instruction, 18(11), 1-18.  
DOI : 10.22251/jlcci.2018.18.11.1
- [20] J. H. Lee & W. Kim. (2018). The Effects of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on 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ing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The Korean Regional Politics Review*, 8(1), 89-111.
- [21] J. H. Kim. (2018).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College of Nursing :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4), 37-45.
- [22] J. I. Lee. (2020) A Convergence Study o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Global Citizenship as influenc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2), 391-400.  
DOI : 10.15207/JKCS.2020.11.12.391
- [23] M. K. Park & H. S. Byun. (2019). Effect of Team-Based Learning on Health Care and Nursing Policy Subjects in Nursing Department and Specialized Deepening Cours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1), 105-123.  
DOI : 10.22251/jlcci.2019.19.21.105
- [24] H. Y. Kang, M. J. Chae, H. S. Seo & K. M. Yang. (2013).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69-77. DOI : 10.5977/jkasne.2013.19.1.69
- [25] D. U. Shin & H. S. Yang.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media properties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communication of voter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3(2), 137-159.
- [26] R. M. Branch. (2009). *Instructional design: The ADDIE approach*. New York : Springer Science & Business.
- [27] Nursing Policy Research Society. (2023). *Health care and Nursing policies(second)*. Seoul : Edu Factory.
- [28] K. J. Park & M. Kwon. (2018). The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1), 1-18.  
DOI : 10.22251/jlcci.2018.18.11.1
- [29] S. Hagelin. (2019). *Educ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mong Youth in Kosovo: A field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behavior*. Master's thesis. Uppsala University, Uppsala, Sweden
- [30] C. Willeck & T. Mendelberg. (2022).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8, 89-110.  
DOI :10.1146/annurev-polisci-051120-014235
- [31] J. H. Choi, S. J. Hur, H. Y. Kwon. (2011). The interest, political interest and voting behavior the case of 2007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Peace Studies*, 19(20), 175-197.
- [32] N. Y. Kim. (200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olitical educational effec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 Focused on the change of political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김민지(MinJi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9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2년 3월~현재 :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학, 간호정책, 지역사회간호학, 노인간호
- E-Mail : mj\_kim@kiu.kr

## 김경진(Kyeng-Jin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9월~2022년 8월 :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2년 9월~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성인간호, 간호정책
- E-Mail : kkjin@knu.ac.kr